

“집 앞 공원 비둘기가 비실” AI 의심신고 폭주

참 뻔뻔한 대학생 그 얼굴 공급하다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불꽃이 전혀 예기치 못한 곳까지 튀고 있다.

나주·해남까지 유입된 AI 공포 때문인지 광주에서도 시민들의 AI 의심 신고가 폭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에 나서서 등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AI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시민들의 현혈 금지 규정 때문에 현혈원에서는 예정됐던 현혈이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방역 기간이나 명절을 앞두고 해당 지역 여행이 가능한 지를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전화 빗발 ... 확인하느라 업무 마비

타미플루 복용자 현혈 배제 ... 혈액수급도 비상

◇혈액수급 ‘비상’=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의 경우 AI 여파로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주요 현혈 대상자에 포함된 공무원들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AI 방역 활동에 투입되면서다.

혈액원은 현재 수혈을 통해 AI가 전염된 사례는 없지만 타미플루 복용자 등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현혈을 받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달 해남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 현혈 계획은 취소됐다.

다음달 줄지어 예정된 지역 공공기관 공무원 등 3900명을 대상으로 한 단계 현혈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혈액원은 또 해남 AI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에 거주한 주민이나 해당 지역을 방문해 닭·오리 등을 접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혈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AI 발생 지역이 확대될 경우 현혈 중단 지역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혈액원측 입장이다.

27일 현재 농축적용물 재고는 7.1일

분(적정 재고 7일분), 농축혈소판은 1.5일분(2일분)에 불과한데다, 현혈자 급감으로 인해 자칫 혈액 공급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 앞 비둘기가 이상해요” = 광주 5개 자치구에는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집 앞 비둘기가 AI에 걸린 것 같다”, “공원에 모여 있는 새들이 힘이 없어 보인다” 등 각 자치구마다 하루 신고 전화량 평균 10통이 넘는데다,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탓에 공무원들의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구청은 27일 전남대학교 내 연못에서 “오리 한 마리가 비실대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공무원이 출동, 분변을 수거하느라 호들갑을

떨었다. 지난 24일에는 “집 앞을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인다”는 신고가 동구청에 접수되는가 하면, 북구 문흥동 한 공원에 죽어 있는 비둘기가 AI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신고 등도 잇따랐다.

각 자치구는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해당 가검물을 수거, 광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실시해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AI 확정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

북구, 광산구 보건소는 지난주 중반부터 방역소독차를 이용해 하루에 한 번 이상 관내를 돌며 방역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5·18 희생자 ‘홍어’ ‘택배’ 조롱 ... “명예훼손 아니다” 주장

대구지법서 첫 재판 열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첫 재판이 27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20)씨는 작년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피고인 양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 내엔 5·18 부상자회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회원 40여명이 찾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양씨가 조롱한 사진 속 망자의 유족인 김문희(46)씨는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을 ‘홍어’, ‘택배’라고 비하한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울먹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 해 다니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광주지법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양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소방대원 덕분에 희망을 가졌어요

근육병 3형제 엄마 감사 편지

근육병인 근이영양증을 앓는 3형제를 둔 어머니가 최근 자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손 편지를 썼다. (광주일보 2013년 12월 24일자 1면)

최현민(12·중북쪽에 1급)군 등 삼형제의 어머니인 조나영(여·33)씨는 지난 27일 A4용지 두 장 분량의 손 편지를 쓴 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보내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달 초 최군의 꿈이 소방대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 소방안전본부에 협조를 요청,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3명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아동복지 전문가이다.

조씨는 편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아이들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는데, 소방대원이라는 얘길 듣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할지 몰라 매우 난처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도움을 요청,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주었다”며 “당시 광산소방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그때만 생각하면 절로 웃음을 짓는다”고 썼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음주운전 사고의 참상

26일 밤 11시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큰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김모(23)씨의 K5 승용차와 마주 오던 김모(40)씨의 i40 차량이 충돌,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K5 승용차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루탄’ 김선동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홍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

정역 1년 징유 2년 선고 김의원 “즉각 상고하겠다”

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

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고의 사고 내고 보험금 가로챈 10대들

광산경찰 85명 검거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10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7일 고의 사고를 낸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홍모(20)씨와 위모(19)군 등 8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홍씨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의료비 수가가 높은 한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63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사고 유형 등 전체를 설계하는 총책과 모집책, 합의책,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승용차에 최대 탑승 인원인 5명을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짚은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명의의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유혹비로 탐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가게 앞 주차 차량에 페타이어 ... 홍어집 여주인의 심술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페타이어를 차량 보닛에 올려놓는 등 ‘심술’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서 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59)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K홍어집 앞에 주차된 운모(30)씨 승용차 보닛 위에 페타이어 3개를 올려놓았다가 윤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영업 중인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자리를 뜨면 서도 연락처 하나 남겨놓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해명.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8기)	광주교육대학교(9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3.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3.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 2014. 3. 31(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3.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3.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1. 23(목)~3. 8(토)	2014. 1. 23(목)~3. 8(토)
수업기간	2014. 3. 7(금)~2014. 8. 16(토) (5개월 24주 96시간)	2014. 3. 3(월)~2014. 8. 16(토) (5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80,000 (10급주:공주예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80,000 (매급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특점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해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영·초·중·고)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해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영·초·중·고)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8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춘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학과	모집 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 아 교 육 과	○
예능	음악 학 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총 계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4. 2. 21(금) ~ 2. 24(월)
 ·전형일: 2014. 2. 25(화) 오후 2시

■특별전형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로 36